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6/5) 청소년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종열 장로)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6/6) 주일간식담당은 박성대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겠습니다.
5. 노회 주관 '청지기 대학' 안내 : 제 194회 지교회 피택 항존 직분자 교육인 청지기 대학이 노회 주관으로 7월 6일~10월 5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뒤편에 유인물로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이 6월 3일 입국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30일	6월 6일	6월 13일	6월 20일
예배기도(2부)		인도자	신재준 집사	이정환 집사	조정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박성대 집사 가정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김(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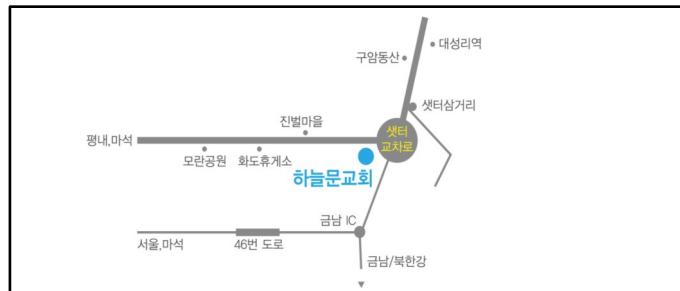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44번(시 100:1-5)	다같이
*경배찬송 19장(통 4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1장(통 460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20:1-13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하나님의 은혜'	김묘상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315장(통 512장)	다같이
*축도	김묘상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2:1-8 '영적 예배'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49)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소망은 어디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때는 한계가 있고 그 끝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인간의 삶에 대해 절망하거나 세상을 덧없이 여기며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는 말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염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지칭합니다. 그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으며,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풍족히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전도서의 시작을 다시 읽어 보면 참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이유 없이 비관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누려 보았는데 결국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고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급한 일, 중요한 일, 복잡한 일 등 우리를 다그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들도 많고, 챙겨야 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에는 삶의 자리가 너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3) 여기 나오는 ‘수고’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노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개인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절망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에게 남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또한 제일 큰 것 같지만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